

‘충돌 불운’ 한국 쇼트트랙, 내일 메달 사냥 재가동

26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서 美와 충돌…최종 6위 마감
여자 500m·남자 1000m 입상 도전…김길리 부상 변수



혼성계주 경기에서 충돌 불운을 겪은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다시 한번 첫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3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이번 대회 첫 메달을 노린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 쇼트트랙은 첫 메달 레이스 일정이던 혼성 2000m 계주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날 준준결승을 1위로 통과한 한국은 준결승 2조에서 최민정·김길리·황대현·임종연으로 팀을 꾸려 캐나다, 벨기에, 미국과 경쟁했다. 경기 시작 후 3위로 출발한 한국은 미국, 캐나다에 이어 레이스를 이어갔으나, 경기 중반 미국 선수와 충돌하는 악재를 겪었다. 당시 1위로 달리던 커린 스토더드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김길리가 피하지 못한 채 부딪쳐 쓰러졌다.

결국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2분46초55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한국은 캐나다, 벨기에에 이어 3위에 그치면서 파이널B(순위결정전)로 떨어졌다. 경기 종료 후에는 미국의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 획득을 주장하며 소청 절차를 밟았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이후 순위 결정전에서는 2분40초312를 기록,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최종 6위로 혼성 계주를 마감했다.

절치부심한 한국은 13일 열리는 개인전 경기에서 실력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지난 10일 열린 여자 500m 예선에 출전한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과 남자 1000m 예선에 나선 임종연, 황대현, 신동민은 모두 준준결승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중 가장 메달이 기대되는 종목은 남자 1000m다. 중장거리에 강점이 있는 한국 대표팀의 핵심 전략 종목이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주목할만한 선수는 단연 임종연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파이널B. 한국 최민정 등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아쉬워하고 있다.

임종연은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다. 경험 부족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이번 대회 남자 1000m 예선과 혼성 2000m 계주에서 든직한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특

히 이번 대회에서 신인 선수가 흔하 범하기 쉬운 무리한 플레이가 없었다.

1000m 예선에서 루카 스페케나우셰르(이탈리아)와 선두 다툼을 펼치다가 막판 1위를 내줬으나 안전한 레이스로 2

위를 기록, 준준결승에 올랐다. 이날 많은 선수가 무릎 빙질 탓에 넘어지고 실수했으나 임종연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경기를 이어갔다.

베테랑 황대현 역시 실수를 최소화하

기 위해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치렀고, 첫 올림픽 무대를 밟은 신동민 또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경기력을 보였다.

더욱이 남자 쇼트트랙 최강자 윌리엄 단지누(캐나다)가 이날 큰 활약을 펼치지 못한 점도 고무적이다. 단지누는 혼성 2000m 계주에서 별다른 활약 없이 이탈리아에 금메달을 허용했다.

여자 500m에 나서는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도 기대를 모은다. 사실이 종목은 한국 대표팀의 취약 종목이다. 현재까지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 없다.

하지만 최민정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스타트 등 단거리 훈련에 집중했고, 월드컵 3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최민정은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과 준결승, 파이널B에서 모두 1번 주자를 도맡아 대표팀을 이끌었다.

다만 여자팀에게는 변수가 생겼다. 최민정과 함께 여자 대표팀을 이끄는 김길리의 부상 상태다.

김길리는 혼성 2000m 준결승에서의 충돌 과정에서 오른팔을 다쳤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훈련과 경기력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소 허무하게 메달을 놓친 대표팀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5-2026시즌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 남자 에페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단. 왼쪽부터 황현일, 장호민, 박상영, 권오민.



‘2025-2026시즌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 여자 에페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단. 왼쪽부터 임태희, 박소형, 송세라, 박진주.

전남 펜싱, 국제대회 단체전 남·여 동반 ‘은’

전남도청 박소형·해남군청 권오민, 에페 월드컵서 각각 준우승

전남 펜싱이 국제대회에서 남·여 동반 은메달을 획득,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1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박소형(전남도청)과 권오민(해남군청)은 ‘2025-2026시즌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단체전’ 남·여부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소형은 최근 중국 우시에서 열린 여자 에페 월드컵 단체전에서 임태희, 박진주, 송세라와 팀을 이뤄 16강전에서 독일을 42-34로 제압했다. 이어 8강전에서는

중립 자국 팀(Ain)을 41-32로 꺾었고, 4강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접전 끝에 42-40으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개최국 중국과 맞붙어 선전했으나, 35-45로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 획득에 만족해야 했다.

권오민 역시 최근 독일 하이덴하임에서 열린 남자 에페 월드컵 단체전에 황현일, 장호민, 박상영과 함께 출전해 16강전에서 헝가리를 42-38로 제압했다. 이후 8강

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45-31로 완파했으며, 4강전에서는 스위스를 상대로 박빙 승부 끝에 41-40의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펜싱 중주구’ 프랑스에 45-37로 패하며 은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는 박소형·권오민 모두 시니어 국제대회에서 거둔 첫 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전남도 직장운동 경기부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국제무대 경쟁력 강화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문영준 전남도펜싱협회장은 “세계 최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월드컵 대회에서 전남 소속 선수들이 남·여 동반 은메달을 획득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특히 두 선수의 시니어 국제대회 첫 메달은 전남 펜싱의 성장 가능성과 저력을 분명히 보여준 결과로,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소속 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실력을 입증하며 값진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성과는 선수 개인의 노력은 물론 지도자, 소속팀, 지역 체육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전남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우수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원사업 추진

설명회 실무자 40명 참석

19개 시·군지회 협력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논의

2025년 시도 평가 ‘A등급’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체육회 생활체육부 관계자 및 시·군지회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도내 19개 시·군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전남 지역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체육 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고령 장애인의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 내 ‘고령 특화 종목’ 편성을 필수화했다. 또 기존 일반 스포츠 클럽의 운영 내실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지난해와 달라진 사업 지침

이 안내됐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시·군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2026 전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지회 워크숍으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반다비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혀갈 방침이다.

현장 밀착형 지원도 강화된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과 더불어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사업을 통해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하계레포츠 프로그램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 선수와 동호인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지나해 시도 평가 A등급 획득은 시·군지회와 도체육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도 고령화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원사업을 통해, 전남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시체육회, 빙상 종목 전략 육성 나선다

지도자 7명과 간담회…전문선수 육성 방안·발전 논의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도시공사 소속 쇼트트랙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 빙상(쇼트트랙) 종목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문선수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광주도시공사 소속 쇼트트랙 지도자 7명과 체육회 관계자 6명

등 총 13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 빙상 종목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온 훈련시간 부족, 연계육성이 가능한 관내 대학의 부족, 우수선수들과 합동 훈련 기회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시체육회는 전문선수 전용 훈련시간 확대 및 우선 배정 방안 마련, 초·중·고·대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시체육회에서 도시공사 소속 쇼트트랙 지도자 간담회를 개최, 빙상(쇼트트랙) 종목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전문선수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연계 육성을 위한 육성체계 구축, 우수선수 계약을 통한 우수선수와 광주 합동훈련 등을 주요 발전 방향으로 설정했다.

특히 광주도시공사 소속 지도자의 역할

을 생활체육 선수 육성에 국한하지 않고, 엘리트 선수 육성과 전국대회 경쟁력 강화까지 연계하는 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하중 기자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1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